<국어메이트 수능특강 문학 대비문제 part1. 교과서 개념 학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나)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들길에 서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당대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자연물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①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는 표현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군.
②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군.
③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살면서 자연으로 도피함으로써 시대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군.
④ '저문 들길에'라는 표현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군.
⑤ '별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과 마주하며 이상을 지향하는 태도로 볼 수 있군.

4. (나)를 읽은 학생들이 <보기>의 자료를 접한 뒤에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우리 동네 구자명 씨」를 싣고 있는 시집 제목은 '여성 해방 출사표'이다. 시인의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 실천적 전법을 보였던 작품이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을 타파하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여성 해방 운동, 곧 페미니즘이다.

① (나)는 단순히 맞벌이하는 '구자명 씨'의 힘든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
② 맞아, 시집 제목을 보면, '구자명 씨'의 삶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을 받아온 여성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어.
③ 1연에서는 출근길에 구자명 씨의 조는 모습을 묘사하여 맞벌이 여성의 고단한 삶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군.
④ 그래, 2연의 '아기', '시어머니', '남편'은 맞벌이 여성이 육아, 가사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인물들이야.
⑤ 나아가 3연에서는 이러한 '구자명 씨'의 삶을 여성의 미덕으로 왜곡하는 남성들의 인식을 '팬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라는 표현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

[주관식1(단답형)] (나)에서 시적대상을 비유한 표현을 모두 찾아 쓰시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을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그날을 그저 까닭 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똑 일곱째 칸이다.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 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 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오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 놓고, 열어 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쳐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 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쪼끄만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휴지)를 끄실려 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 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 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에 이르는 고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이 싫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도 곧 싫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고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고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중의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이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막고 생각해 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내음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 방이 벽에 못 한 개 꽂히지 않은 소박한 것인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장밑으로 쫙 돌려 못이 박히고 못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그 여러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胴)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고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중략)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 이상, 「날개」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독백적인 어조로 인물의 내면과 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ㄴ.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서술자가 외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ㄹ.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와 관련하여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자신의 처지에 저항하고 있다.
② ㉯에서 '나'는 아내의 물건을 통해 '아내'에 대한 적개심을 느낀다.
③ ㉰는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④ ㉰는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⑤ ㉮와 ㉯의 분리는 '나'와 '아내'와의 관계의 회복을 암시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 년 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쩍 지나 조물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올에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顔)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삼삼오오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인연을 끊었어도 생각이야 없을쏘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리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중략)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 일 년 일도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아침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섧다
㉤**세상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동 말 동 하여라

-허난설헌, '규원가'

(나)

비자반(榧子盤)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盤材)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盤面)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 전후인데, 특급은 2천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지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 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過失)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양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과실은 예찬(禮讚)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언(揚言)할 것이냐?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중략)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요,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 가고 깊어 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淨化)되는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김소운, '특급품'

7.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사물의 속성에서 삶의 이치를 끌어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를 긍정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자연물의 생리로부터 인간의 삶의 도리를 발견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타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자신들이 겪었던 비극적 경험의 경과를 회고하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임과의 만남이 화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운명론적으로 예정된 것임을 강조한다.
② ㉡: 세월의 흐름에 따른 외모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탄의 정서를 드러낸다.
③ ㉢: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④ ㉣: 설화적 인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임과의 재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⑤ ㉤: 화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청자로 삼아 자신의 정서에 대한 동조를 촉구한다.

[주관식2(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과 유사한 기능의 시어를 (가)에서 <u>모두</u> 찾아 아래의 문장형식에 맞춰 서술하시오.

<보 기>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中

('*밑줄 친 ㉠과 유사한 시어는 ~다.*'의 문장형식으로 서술할 것)

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글쓴이는 '비자'에 대한 유추를 통해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① 유연성이란 특질을 지닌 '비자'를 과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과 견주고 있다.
② 비자반의 상처와 인생의 과실을 결부시켜 '과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③ 비자반 일등품과 특급품의 차이를 통해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비자반 특급품이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인간이 시련을 감내하는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 사고가 발생한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을 통해 과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을 긍정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이색, 「부벽루(浮碧樓)」

*부벽루: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나)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百草皆有根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浮萍獨無蔕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汎汎水上行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常爲風所曳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生意雖不泯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寄命良瑣細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蓮葉太凌藉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荇帶亦交蔽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同生一池中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何乃苦相戾

- 정약용, 「고시(古詩) 7」

(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쳥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쳥산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짒대예 올아셔 ᄒᆡ금을 혀거를 드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니 ᄇᆡ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 ᄒᆞ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1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역설적 발상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 구체화하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부벽루」는 고려 말 이색이 여행을 하다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성의 부벽루에 올라 감회를 읊은 한시이다. 원(元)나라가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할 즈음 평양은 크게 황폐해졌고, 그 후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지만 옛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이색은 부벽루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과 관련된 기린마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고려의 국운(國運)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짙게 하고 있다.

① '지나다가', '잠시'는 작가가 한 곳에 정착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텅 빈 성'은 원나라에 의해 굳세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③ '조각달'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④ '천손'은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휘파람 부노라니'는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주관식3(서술형)]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가)의 <u>주제</u>를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보 기>

「부벽루」는 한 때,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텅 비어 있는 성의 모습과 조각달을 바라보며 ( )

<조 건>

1. '인간', '자연' 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것.
2.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것. (단, 쓸쓸함 이외의 정서를 적을 것)
3. 띄어쓰기 포함 40자 이하로 서술할 것.
4. '*~ 통해 ~ 드러내고 있다.*'의 문장형식으로 서술할 것.

1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시7」은 정약용이 쓴 고시 27수 중 제7수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우의적인 수법으로 풍자하고 있다. 화자는 힘이 약한 백성을 약탈하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핍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을 통해 당시 강한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는 지배층들의 모습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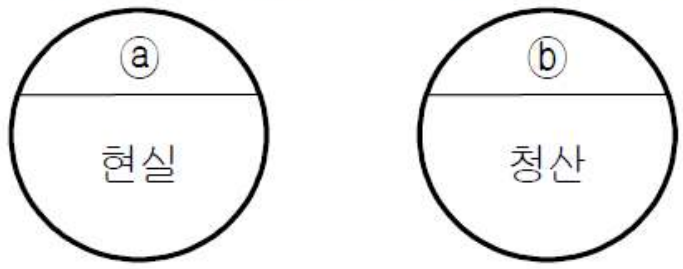
① '뿌리'가 있다는 데서 '풀'은 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핍박하는 지배층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바람'은 '부평초'를 끌고 다닌다는 점에서 힘이 약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유일한 관리라고 볼 수 있다.
③ '연잎'이 '괄시를'하는 상황은 힘 있는 백성들이 관리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④ '가냘프기만 해'라는 표현에는 힘없는 백성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 풍자를 드러낸다.
⑤ '어그러지기만 할까'는 지배층이 횡포를 부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현실을 한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나타나며 비교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② ㉡은 '청산'과 대조적 의미의 시어가 드러나며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 있다.
③ ㉢은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하며 시간적 배경 속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④ ㉣은 '새'를 향해 던진 돌을 화자가 맞음으로써, 화자의 슬픔과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⑤ ㉤은 주객전도의 상황을 통해 현실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4. <보기>는 (다)의 수업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 선생님: 오늘은 작품 속의 화자의 위치에 대해 추리해 보고, 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따라 노래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화자가 현실(ⓐ) 또는 청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공간은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순이: ⓐ에 있는 화자에게 ⓐ는 존재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철수: ⓐ에 있는 화자에게 ⓑ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영수: ⓑ에 있는 화자에게 ⓐ는 고통 해소의 공간입니다.
◦영희: ⓑ에 있는 화자에게 ⓑ는 또 다른 고통의 공간입니다.

① 순이, 철수
② 순이, 영수
③ 철수, 영수
④ 철수, 영희
⑤ 영수, 영희

[주관식4(서술형)]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서술하여 <보기>를 완성하시오.

<보 기>

「청산별곡」의 갈래는 Ⓐ이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은 Ⓑ이며 이 구절의 특징은 Ⓒ 특징과 Ⓓ 특징이 있다.